

초록번호 : II-2-5

체 목	국 문	일부지역 근로자의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 조사		
	영 문	A Study on the Medical Insurance Utilization of Workers Suffering from Low Back Pain in an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이철갑·안현옥·류소연·박 중·김기순·김양옥 조선의대 예방의학교실		
	영 문	Chul Gab Lee · Hyun Ok Ahn · So Yeon Ryu · Jong Park Ki Soon Kim · Yang Ok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분 야	산업보건	발 표 자	이 철 갑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 style="text-align: center;">1. 연구목적</p> <p>산업장에서 직업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요통은 근로자 개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이다.</p> <p>본 연구는 직장의료보험급여자료에 나타난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의 이용정도 및 발생률, 전체 의료보험 이용 중 요통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파악하여 산업장 요통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2. 연구방법</p> <p>1993년부터 1995년까지 일개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26,928명 중 3년간 계속해서 자격을 유지한 남자 8,783명, 여자 1,400명, 계 10,183명의 의료보험급여심사완료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p> <p>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요통의 범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차개정 중에서 임상적 감별 진단상 주로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요통과 관련된 코드로서, 요통을 ‘변형성 배변증’, ‘기타 배변증’, ‘요추염좌’로 세분한 후, 분석을 위한 개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p>				

연령, 입사시 연령, 근무기간, 직종, 종사하는 산업, 근로소득별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1993년에서 1995년까지의 3개년간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수진율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고, 1993년, 1994년, 1995년의 연도별 수진율의 변화 추이 및 1994년과 1995년의 새로운 수진자의 발생률을 구하였다. 요통으로 인한 수진량은 입원과 외래로 나누어서 총입원일수 및 입원자당 평균입원일수, 총외래방문회수 및 수진자당 평균외래방문회수를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1.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간 연구대상자의 요통으로 인한 수진율은 남자 17.1%, 여자가 19.4%였으며, 요통의 원인중 남녀 모두 '기타 배병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남녀 모두에서 연령 및 입사시 연령이 높을수록 요통으로 인한 수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 < 0.001$). 남녀 모두 근무기간이 길수록 수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남자에서는 시멘트·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종사자가 유의하게 수진율이 높았으며($p < 0.01$), 여자에서는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3.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개년간 요통의 수진율은 비슷하였지만, 세부적으로 기타 배병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요통으로 인한 수진자의 발생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4. 수진량에 있어서는 연령별, 근무기간별, 산업별, 소득수준에 따라 수진자 1인당 평균외래수진건수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5$), 근무기간별로 수진자 1인당 평균외래방문회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4. 고찰

본 연구에서 3년간 한번이라도 수진을 받았던 총수진자수는 남자 연구대상자 8,783명중 7,716명, 여자 1,400명중 1,222명으로 3년간 수진율이 남자 87.9%, 여자 87.3%이었으며, 요통으로 인해서 수진 받은 자는 남자에서 17.1%, 여자에서 19.4%로, 총수진자중 요통으로 인한 수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가 19.5%, 여자에서는 22.3%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요통의 경과가 1주일 이내에 반 이상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며, 산재로 인정되는 요통은 의료보험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업장에서 요통 유병상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요통이 산업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통으로 인한 1993년에서 1995년까지 연도별 수진을 추이는 남자가 6.6%, 7.2%, 7.1%, 여자가 7.4%, 8.1%, 9.5%로 큰 차이는 없지만, 1994년, 1995년의 연도별 요통으로 인한 새로운 수진자의 발생률은 남자에서 5.8%와 9.8%, 여자에서는 6.6%와 12.5%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만성적인 장애(disability)를 유발하는 추간관탈출증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배병증'으로 인한 수진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생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원래 요통의 유병상태는 일정하지만 연구대상자들의 의료이용 자체가 매년 상대적으로 늘어났거나, 둘째, 동일한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거나, 셋째로, KCD 2차개정에서 3차개정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할수 있는 질병분류상의 차이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요추염좌'와 같이 급성적인 발병보다 '기타 배병증'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에 실제로 이 기간동안 노동강도의 증가나 요통을 유발시킬수 있는 작업조건 등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어 요통발생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이용의 증가나 가령(加齡)과 복합되어 증가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요통의 경과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고용주가 요통 근로자를 무능력하다고 보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좋지 못한다면 요통의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요통으로 인한 의료보험 이용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적인 장애를 유발하는 추간관탈출증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배병증'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산업장에서 효과적인 요통예방 및 관리 사업이 요구된다 하겠다.